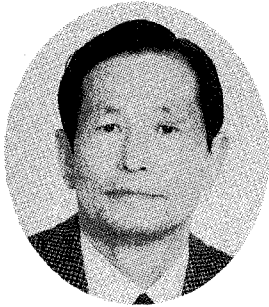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이 신 재

낙농자조금운영위원(협회부회장)

이제는 뉴라운드협상에서 벌어지고 있는 수입개방 압력 속에서 우리 후손들에게 자랑스런 우리 낙농산업을 물려줄 수 있는 준비가 절실한 시점이라 하겠다.

이에 2000년 1월 1일부터 원유 kg당 1원씩 조성기로 낙농자조금운영위원회에서 결의한 낙농자조금사업에 한사람의 무임승차자도 없이 모든 낙농가가 한마음 한 뜻으로 동참해야 겠다.

올해 1999년은 우리 낙농가에 게는 실로 의미있는 해였다. 낙농가 스스로 조성한 17억여원과 정부 지원자금 8억여원을 합한 25억이라는 금액으로 '사랑의 우유 나누기 운동' 등 우리나라 농업사상 최대규모의 낙농자조금사업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97년말 IMF대환란으로 우유소비가 급감해 16,000톤이라는 적정재고량의 2배가 훨씬 넘는 분유가 적체되어 실로 낙농산업은 벼랑끝에서 있었다.

이런 가운데 정부에서는 긴급대책으로 우유소비를 촉진하기 위해 시중의 우유값 약 7% 인하를 단행하기에 이르렀고, 이는 곧 우리 낙농가에게도 원유값 5.4%인하 압력으로 다가왔다. 이에 협회를 중심으로 낙농

자조금을 원유 kg당 5원씩 3개월간 조성하여 우유소비를 촉진하겠다는 조건으로 원유가 인하 압력을 일단 유보시킬 수 있었다.

이어 전국적으로 유업체와 조합별로 낙농자조금 추진위원들을 중심으로 자조금을 본격적으로 조성하기 시작해, 일부 지역 낙농가들의 불참에도 불구하고 약 17억여원이라는 자금을 조성하게 된 것이다.

올해 7월부터 시작한 낙농자조금의 효과는 '사랑의 우유 나누기' 캠페인의 TV 광고가 방영되자마자 그 효과가 나타나 전국민의 심금을 울리는 감동의 메시지로 우유소비가 확대되기 시작했다. 산더미 같았던 분유재고는 7월과 8월의 비수기에 도 적정재고량을 훨씬 밑도는 수준까지 떨어지게 된 것이다.

이제는 뉴라운드협상에서 벌어지고 있는 수입개방압력 속에서 우리 후손들에게 자랑스런 우리 낙농산업을 물려줄 수 있는 준비가 절실한 시점이라 하겠다. 이에 2000년 1월 1일부터 원유 kg당 1원씩 조성기로 낙농자조금운영위원회에서 결의한 낙농자조금사업에 한사람의 무임승차자도 없이 모든 낙농가가 한마음 한 뜻으로 동참해야 겠다.

낙농자조금사업을 지속적인 항구적 사업으로 이끌어 우리 우유의 우수성을 홍보하고 지키는데 우리 낙농가들이 먼저 앞장설 때만이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는 서양속담도 있듯이 소비자도 유업체도 정부도 우리를 이해하고 도와줄 수 있을 것이다. ☺

(필자연락처 : 0613-335-6872)